

'비키니 거부'에 결국 복장 규정 변경

국제핸드볼연맹(IHF)이 최근 성차별 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유니폼 규정을 결국 변경했다. 이에 따라 비치핸드볼 여성 선수도 비키니가 아닌 반바지를 입고 경기할 수 있게 됐다.

2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여성 핸드볼 선수들의 유니폼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지난 7월이다. 당시 노르웨이 비치 핸드볼 국가대표팀은 불가리아에서 끝난 유럽 비치 핸드볼 선수권대회에서 비키니 대신 반바지를 입고 출전 했다. 선수 한 명당 150유로, 모두 합쳐 1,500유로(약 1,900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유럽핸드볼연맹 규정에 따르면 비치 핸드볼 여자 선수들은 경기 시 비키니 한 벌을 착용해야 한다. 상의는 양팔 전체가 드러나는 스포츠 브라, 하의는 옆 면이 10c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남자 선수들의 유니폼은 딱 달라붙는 탱크톱과 무릎 위 10cm까지 오는 길이의 너무 험하고 하지 않은 반바지로 규정돼 있다.

노르웨이 여자대표팀 선수들은 이전부터 "비키니 하의가 노출이 심하고 유니폼이 불필요하게 성적인 느낌을 준다. 특히 생리할 때 불편하다."고 토로해 왔

지만, 국제핸드볼연맹과 유럽핸드볼연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 3개월이 흐른 지난달 텐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 유럽 5개국 스포츠 장관들은 IHF에 공동 서한을 보내 "성별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선수가 스포츠에 남을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며 '구식 복장 규정'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또 노르웨이의 성평등 인권단체는 "(핸드볼연맹이 규정을 바꾸는 것으로) 스포츠에서 여성 차별 및 대상화에 대한 종말이 시작되길 바란다."면서 "미래에는 모든 여성들이 성희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국제핸드볼연맹은 여성 선수들이 비키니가 아닌 '몸에 꼭 맞는 짧은 바지를 입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변경했다. 바뀐 규정은 여성 선수가 민소매와 반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하지만, 여전히 '몸이 꼭 맞는' 복장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로운 유니폼 규정은 지난 10월 3일 부로 적용됐다.



▲ 유럽핸드볼연맹이 지난 7월 비키니 수영복 규정을 어긴 노르웨이 비치 핸드볼 팀 선수들(사진)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사진=wsbuzz.com

이정은, LPGA 버디퀸 등극 눈앞



▲ 이정은. 사진=shutterstock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버디 킹은 임성재(23)다. 3 시즌 연속 PGA 투어에서 가장 많은 버디를 잡고 있는 임성재는 2020~2021 시즌에는 총 498개의 버디를 잡아 PGA 역대 최다 버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종전 최다 버디 기록은 2000년 스티브 플레이시(미국)가 세운 493개였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버디 숫자와 관련한 통계는 2가지로 나뉜다. 총 버디 개수와 라운드 당 평균 버디 개수다. 둘 중 총 버디 개수에서 좋은 순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많은 대회에 출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실력이 없는 선수들은 아무리 많은 대회에 출전해도 컷오프를 많이 당해 버디 숫자를 크게 늘릴 수 없다. 실력과 체력이 겹비한 선수만 버디 킹 또는 버디 퀸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무대에서도 한국 선수 버디 퀸 탄생이 예고되고 있다. 주인공은 바로 이정은(이정은6)이다. 이정은은 이달 11일부터 플로리다 벨에어의 웨리컨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웨리컨 위민스 챔피언십'과 18일부터 플로리다 내플리스에서 열리는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등 2개 대회만을 남겨둔 현재 총 305개의 버디를 잡

아 289개의 파자리 아난나루칸(태국)을 16개 차이로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다. 아난나루칸은 올해 7월 열린 ISPS 한다 월드 인비테이셔널 우승을 포함해 톱10에 6차례 들었던 선수다. 이정은은 올해 우승은 없지만 8차례나 10위 이내에 드는 꾸준한 성적으로 상금랭킹 13위를 달리고 있다. 올해 출전 라운드 수 통계에서 이정은은 총 81라운드를 소화해 83라운드의 아난나루칸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역대 한국선수 버디 퀸은 총 5차례 나왔다. 2001년 김미현, 2002년과 2003년 박자은, 2005년 장정, 2010년 최나연등이다. 이후 11년 동안 끊긴 한국선수 버디 퀸 자리에 이정은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세계 랭킹 1위 고진영(26)과 2위 넬리 코르다(미국)는 2021년 LPGA 올해의 선수상을 두고 막판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고진영이 176점으로 올해의 선수 1위, 코르다는 161점으로 15점 차 2위를 기록 중이다. 만약 고진영이 올해의 선수상을 거머쥔다면 2019년에 이어 2년 만의 수상이자 지난해 김세영(28)에 이어 한국이 처음으로 이 부문 3년 연속 수상에 성공하게 된다.

★ 싸인 플러스 ★

간판

LASER ENGRAVING

SIGNPLUS

★ TROPHY & ENGRAVING

FAX: (562) 809-3878
SIGNPLUS123@YAHOO.COM

★ 싸인 플러스 ★

트로피

세리토스점

SAME DAY SERVICE AVAILABLE

★ OPEN MON-SAT ★
17615 PIONEER BL., ARTESIA, CA 90701